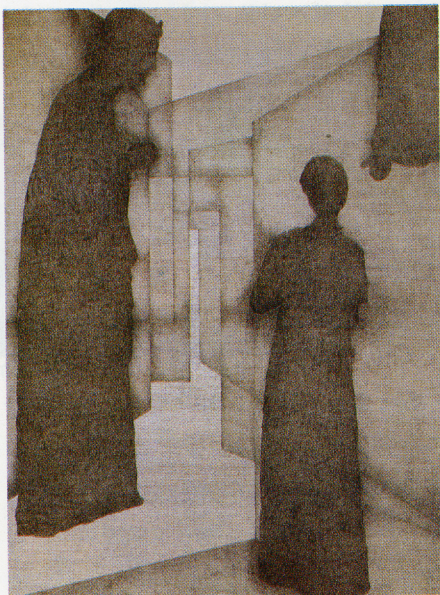


공간의 사이, 사이의 공간

서혜영展 2003. 12. 5~19 갤러리인



〈유비쿼터스〉 캔버스에 연필 240×180cm 2003

원근법은 하나의 주관적 관점 일 뿐 객관적 진상이 아니다 사물이 모여 공간을 이루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는 공간 위에 사물들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물리적 사물들을 초과하는 심리적 사물과 경험은 언제나 원근법과 공간적 사유방식을 배반한다 자 그러면 이제 회화는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서혜영의 근작들은 이러한 인식론적 질문에 대한 일련의 답변들이다

우선 그의 근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격자(grid)의 사용이다 관람자와 작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격자들은 일종의 필터처럼 기능한다 그것은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습관을 재현하는 듯하다 물리학이 세계를 한없이 분할해 원자 등의 단위를 발견해 세계를 거꾸로 재조립하려 했듯이 회화 역시 카메라 옵스큐라 등을 이용해 화면의 단위를 인위적으로 설정하려 했다 그러나 세계는 퍼즐 조각처럼 자의적으로 분할되고 재합성되지 않는다 우리의 눈이 카메라와 달리 정신적 물질적 공간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격자의 필터는 우리에게 물리적 공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지만, 언제나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보여준다 격자뿐만 아니라 화면을 채우고 있는 작은 벽돌의 이미지들도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낳는다 요컨대 원근법적 시각은 정신적 공간을 포착해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정신적 공간은 물질적 공간 속으로 어떻게 투입하는가? 한 공간 속에 다른 공간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사이'가 필요하다 서혜영의 그림들 안에는 수직선, 수평선, 사선들이 그어져 있다 어떤 선들은 르네상스의 회랑을 연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층적인 구조를 지닌 공간의 내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이 선들은 하나같이 어긋난 투시도법의 선들이다 즉 이 선들이 공통적으로 수렴하는 소실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근법에 대한 배반은 겹겹의 공간들간의 틈을 만들어놓는다 이른바 '공간의 사이'가 등장하는 것이다 공간의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인물의 형상은 작가가 수태고지의 도상으로부터 차용한 것들이다 동정녀가 통정 없이 예수를 잉태했던 것처럼 정신적 공간은 매개 없이 물질적 공간과 융합된다 이 융합의 장소에서 정신적 공간과 물질적 공간의 이분법을 넘어선 '사이의 공간'이 모습을 드러낸다 서혜영의 인식론적 물음은 이처럼 '사이의 공간'이라는 해답을 얻는다

김흥기 기자